

인문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영상매체학

임 정택 연세대 독문과 교수, 미디어아트 연구소장

1. 기술시대의 인문학의 위기

전자매체의 혁명적 발전은 그러한 기술적 혁신이 각 학문분과들에 가져올 변화력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끊임 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으며 '기술의 고고학'에 대한 성찰을 자극하고 있다.

17, 18세기의 기술을 대변했던 것은 시계 제작자와 렌즈 연마공이었다. 시계 제작의 기술은 규칙성을 상징하는 자연의 법칙을 구현하는 것이었으며, 렌즈는 자연을 관찰하려는 계몽주의적 과학정신의 산물이었다. 망원경을 통해서 멀리 있는 물체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했으며 현미경을 통해서 사물을 더 자세히 보고자 했다. 렌즈의 발달은 항해술의 발달로 이어지며 인간의 자연정복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자연 법칙의 발견과 가공은 나아가 생산력의 증대를 유발했으며 여기에 필요한 것이 생산력의 향상을 위한 에너지 혁명이었다. 18, 19세기의 산업혁명은 바로 동력장치의 개발을 통한 에너지 혁명 외의 다른 것이 아니었다.

제1차 산업혁명이 에너지와 동력장치의 혁명이었다면 각종 통신기술이 주도하고 있는 제2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방식의 기호기록체제와 기호전달체제이다. 우리는 책 대신에 디지털 방식이나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서 정보를 얻고 있으며, 독서를 하는 대신에 극장이나 사이버공간에서 꿈을 꾸고 있다. 상징들의 전자적 매개와 보존이 커다란 변혁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의 결과는 내용과 이름의 절대적 분리이며 기호와 현실의 단절이다. 그래서 현대 서구에서는 기본적인 욕구충족보다는 영화, TV, 원거리 통신, 음악, 컴퓨터 게임 등에서 기호를 통한 쾌락이 더 중시되고 있다는 진단이 내려지고 있다.

팬데로부터 움직이는 글자를 거쳐 전신, 전화, 축음기, 자기테이프, 라디오, 영화, TV, 전자공학, 컴퓨터에 이르기까지의 재생산, 저장, 전달기술들이 인문학 자체에 그리고 인문학에 관한 이해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새로운 매체의 출현이 우리의 인지형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그리고 우리의 경험방식을 어떻게 새롭게 구조 지우고 있는가? 이제까지 인문학은 자신의 영역에서 고립된 채 독자적인 지식과 논리체계를 구축해왔기에 이러한 외부적 충격과 자극을 수용하지 못했다. 오늘날 인문학의 위기는 바로 이 같은 폐쇄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술적 과학적 이성파 EDV 식의 yes/no 결정에 의해 주도되는 세계는 인문학의 '마술화'(Verzauberung) 경향과 다의성, 역사성을 배제해왔다. 기술이 지배

하고 있는 세계에서 오래된 인문적 가치들인 자율성과 신빙성의 가치들은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인문학이 점점 더 기술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인문과학적 문화와 자연과학적 문화 사이의 괴리가 심화되어 왔다.

근대 이후의 학문의 발전은 끊임없는 분화의 과정이었다. 그것은 거쳐야 할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형이상학으로부터의 주체의 해방과 함께 탈 신화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는 더 이상 하나의 이념으로 환원될 수 없는 복합적인 것으로 인지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주체가 세계를 인지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에 따라 계속 새로운 학문분과가 생겨났으며 급기야는 각 학문영역들이 각자의 고유한 논리와 지식으로 무장한 채 타자를 배제하게 됨으로써 지식이 자연히 권력과 연루될 수밖에 없었다.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세계는 분화의 극치에 이르러 파편화되기에 이르렀고, 모든 고정화된 규범과 이념은 해체되어 현상들 사이의 넘나들기가 세기말을 규정 짓는 하나의 현상으로 되고 말았다. 이러한 시대적 위기에 우리는 또 다시 새로운 총체성과 통합을 꿈꾸게 된다. 새로운 총체성이란 모든 것을 흡수해버리는 그러한 단일한 이념체계가 아니라 모든 개별적인 것 특수한 것을 인정하면서 통합으로 나아가는 이념이다. 그것은 자기파기와 상승작용을 통한 무한한 지향의 원칙이라는 낡은 변증법적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각각의 독립된 영역과 영역간의 수평적 소통을 위한 합의와 조화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위기와 새로운 통합에 대한 꿈은 인문학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는가?

2. 상호매체적 인문학

오늘날 예술 생산과 분배는 상호매체적으로 수행되고 있기에 학문간의 통합적 공동작업이 없이는 문화현상들

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상호매체성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고 있는 현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술의 본질이 아니라 미학적인 것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형식들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화와 TV의 시대에 18, 19세기 미학이 의사소통 사회학, 문예학, 예술사, 음악학, 영화기호학 등의 특수학문으로 교체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적 분업이 문학, 영화, 음악, 미술들을 관계 없이 병렬만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학제간의 통합적 연구이다.

상호매체성은 이제 연결점을 찾고 있는 인문학의 분과학문들을 위한 매개점이 되고 있다. 전통적인 인문학의 분과학문들은 그들이 유지해 온 학문적 고립을 위기로 느끼고 있다. 문학텍스트가 영화, TV, 비디오 그리고 CD 롬으로 보여지고 있음을 인문학자들은 오랫동안 간파해왔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면서부터 전통적인 분과학문들의 자리에 매체학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이러한 매체학은 처음부터 사회적이고 정보학적인 매스컴 연구와는 달리 예술과 문학의 매체적 발전과 변형을 책, 사진, 영화, 비디오, 전자매체, 연극들과 관련하여 조망한다.

예를 들어 문학은 인쇄매체와 영상매체를 넘나들면서 그리고 연극, 오페라의 형태로 재생산되면서 끊임없이 변형되고 많은 하부 텍스트들을 양산해내고 있다. 그래서 상호매체적 텍스트 분석은 각 매체형식의 특성에 따라 의미의 전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에서 눈이 먼 글로스터가 도버 해협의 절벽 위에서 죽기 위해 몸을 던지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매체 형식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수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먼저 책으로 독서하는 경우이다. 독서의 특성은 우리를 고립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즉,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것에서 우리 자신을 배제시켜야만 하고 텍스트에

은통 집중해야 하고 독서하는 개인으로서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책의 세계 속에 들어가 인물들이 느끼고 체험하는 것에 동참하고 묘사된 것을 환상 속에서 생생하게 그리게 된다. 이러한 독서의 경우 운율과 속도변화는 사라진다. 우리는 산문에 익숙한 독서습관을 가지고 언어의 감각적 질보다는 단어의 의미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서하면서 우리는 인물들간의 대화상황을 무시한다. 우리가 말하는 인물에 집중하기 때문이며 한 인물의 발언을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표현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절벽 장면에서 에드거는 절벽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며 묘사하고 글로스터는 신에게 기도한 후 아래로 뛰어내린다. 우리가 이 장면을 읽을 때 에드거의 절벽 묘사가 환상 속에서 형상들을 불러오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글로스터가 갖게 될 공포를 느끼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은 비감각적이다. 긴장은 추락하려는 글로스터의 육체적 준비와 에드거의 육체적 현존을 통해 발생되는데 독서의 경우 신들 앞에서 자신의 고유한 영혼의 상태를 묘사하는 글로스터의 기도가 흥미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추락은 연극공연에서 가질 수 있는 중요성을 가지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는 것이다.

연극공연을 볼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으며 개인으로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체험하며 상호작용하고 있는 등장인물을 보게 된다. 개인적인 독서에서와는 달리 우리는 함께 영향을 미치는 관객으로서 참여한다. 무대 전체에 대한 시야는 거리감을 창조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비판적 판단을 요청한다. 동시에 인물에 대한 공감도 일깨워진다. 우리는 긴장과 모순적인 감정에 내맡겨지며 다양한 인물 사이, 공감과 비판 사이의 긴장에 내맡겨진다. 이러한 감정이 무대 위로 향하여 공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추락 장면에서 우리는 에드거가 언어를 수단으로 절벽을 묘사하지만 우리는 그가 글로스터에

게 명백히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글로스터의 추락은 매우 강렬한 효과를 미치는데 글로스터가 상상한 세계가 가시적인 실제 속에서 붕괴되기 때문이다.

무대와 영상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카메라이다. 극장에서 우리는 무대 위의 시각적 인상들 중에서 선별한다. 비디오에서는 카메라가 완전히 새로운 중심으로서 우리와 사건 사이를 중재한다. 카메라는 우리에게 항상 시점을 제공하며 온갖 감정을 일으키게 한다. 카메라는 화자의 역할을 하며 우리에게 보여진 것을 내러티브상의 문맥 속에 배치한다. 예를 들면 추락 장면에서 에드거가 눈을 감은 채 심연을 묘사할 때 카메라가 얼굴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간다. 우리에게 그의 내적 시각이 암시되고 우리의 환상은 보다 분명한 감정을 보여준다. 글로스터는 화면 아래로 가라앉고 에드거는 머물러있고 말로서 상황에 주석을 단다. 이것은 별 효과가 없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화면에서 사라진 글로스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각 매체적 특성에 따라 하나의 작품이 다양하게 읽히며 수용되는 것이다. 이제 인문학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의사소통의 환경과 변화된 문화적 자기이해로부터 나오는 문제들을 연구 스펙트럼에 위치시켜야 한다.

각 분야의 개별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공조하는 새로운 통합적 학문작업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현재 연세대 미디어아트 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춘향전의 세계화를 위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를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춘향전에 관한 CD 타이틀 제작을 통해 국학의 세계화를 목표로 하는 이 프로젝트의 구성원은 우선 춘향전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국문학자, 영화연출가, 외국문학자,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컴퓨터 공학자, 촬영팀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한 팀을 이루어 기획

단계에서 제작까지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연구팀은 기존의 다양한 매체로 된 춘향에 술이 새로운 매체로 전이될 때 어떤 변형성이 가질 수 있는지 토론한다. 거기에는 소리와 영상 그리고 문자텍스트를 혼합적으로 배열할 수 있고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CD 타이틀이라는 매체의 특성이 함께 논의된다. 특히 사용자와 매체 간의 양방향 소통을 고려한 내용구성과 기능설정이 주요사안으로 논의된다. 매체의 특성이 내용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춘향전 전문가는 기존의 축적된 춘향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들을 어떻게 새로운 매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면서 춘향예술 멀티미디어 제작의 기획을 주도한다. 그는 텍스트 선정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다. 소설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판소리 중심으로 할 것인가, 그럴 경우 어떤 판본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를 팀원들과 토론한다. 나아가 춘향의 이미지 개발을 위해 춘향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두고 논쟁을 편다. 지금까지처럼 열녀로서의 춘향이를 묘사할 것인가 아니면 해방된 여성으로서의 춘향상을 부각시킬 것인가에 대해 토론한다. 이때 외국문학자는 서양의 문학전통과 연계하여 예를 들면 로미오와 비고 분석하면서 토론에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영화연출가는 내용의 구성, 스토리의 진행에 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CD라는 매체의 시간적 한계 등을 고려하면서 그는 판소리 장면을 춘향전 전문가와 함께 분할하고 각 장면에 들어갈 영상이미지를 고안하거나 제시한다. 그는 각 장면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민화를 배경화면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외국문학자는 판소리 텍스트를 번역할 때 국문학자의 주해를 필요로 하며 번역팀과 함께 텍스트 독해를 시도한다. 판소리 텍스트는 외국인들에게도 이해될 수 있을 정도의 현대 국어로 옮긴 다음 외국어 번역을 시도한다. 각 외국어 번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 통일성을 견지하기

위해 번역팀들은 수시로 모여 작업과정을 함께 검토한다. 처음부터 기획에 참가한 멀티미디어 디자이너는 토론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들을 토대로 제작을 시작한다. 그는 여러 가지 기능을 설정하면서 컴퓨터공학자의 도움을 받는다. 필요한 동화상을 확보하기 위해 촬영팀은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장면을 녹화하여 제공한다.

이러한 통합적인 작업을 통하여 한국의 고전문화가 수준 높은 멀티미디어 작품으로 제작되는 것이다. 통합적 영상학의 한 보기로서 제시한 이 프로젝트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영상학은 결코 어느 한 분야의 주도나 독점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흩어져 있는 전문가의 통합적 작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이 분명해진다. 이제까지 이러한 문화상품 개발은 주로 기술이 주도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멀티미디어뿐만 아니라 영화, 비디오 등 모든 영상매체에도 유효한 것이다. 진정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용을 채워주고 구성해주는 인문학자들의 역할이다. 인문학의 영역에만 머무르면서 매체적 환경을 무시한 채 인문학 본연의 작업으로만 여겨진 상상적 공간만을 독점하려 할 때 이러한 작업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지평을 열면서 인문학에서의 전문가가 영상학에서의 전문가로 변신할 수 있는 개방성이 전제될 때 새로운 통합의 꿈은 실현될 것이며 인문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것이다.

3. 통합적 학문으로서의 영상학

인문학적 연구의 스펙트럼의 확대가 통합적 영상 매체학의 조건이다. 이러한 통합적 학문체제에서는 어느 한 분야가 다른 분야에 종속되는 일은 결코 없으며 서로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의사소통의 환경과 변화된 문화적 자기이해로부터 나오는 문제들이 인문학 연구스펙트럼에서 적당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영상이라는 현상은 매우 복합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영상, 말, 음향이 연결된 영화는 다층적인 분석이 필연적이다. 기호학, 서사구조, 사회학, 심리학, 경영학 등이 함께 동원되지 않으면 영화라는 현상을 파악하기 힘들다. 또한 하나의 문화적 내용물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이 현대 예술의 가장 큰 특색이다. 상호매체적으로 생산되고 수용되는 문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는 학문적 분업의 시대에 서로 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신에 의해 쓰여진 성경만이 존재했다면 어쩌면 근대 이후의 인문학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문학의 발달은 인간이 만들어낸 텍스트 즉, 문학이나 역사가 나왔기 때문에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의 문화이자 신의 작품인 자연으로부터 인간의 문화, 인간의 기호체계를 만드는 작업이 곧 인문학적 작업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근대의 역사는 인간의 자의식이 축소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손에서 도구로, 근육에서 기계로, 의식으로부터 기호체계로 그리고 컴퓨터로 옮겨오면서 인간의 세계는 사라지고 기계가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였다. 텍스트가 구가하였던 상상의 세계는 미디어 문화의 환상제작기계들에 의해 채워지고 인간이 문자로 이루어낸 것들은 컴퓨터가 대신하고 있다. 이제는 기술에 의해 축출된 인문학적 상상력의 복귀를 이루어야 할 때다. 그 어느 것도 수직적 구조 아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 분야들의 수평적 구조에서의 연대만이 학문의 총체적 위기를 벗어나는 길이다. 그것은 인문학적 상상력의 은둔을 청산하고 새로운 매체와의 결속을 통해 인문학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때 가능하다. 이제 인문학적 연구대상이 되어야 할 것은 새로운 매체의 출현이 가져다 준 인간 인지의 변화와 그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인문학은 과감히 영상학의 한 분과로서 영상학을 주도하는 분과학문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할 것이다.

문자문화에만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 왔던 인문학자들은 영상이라는 시각문화를 문화적 현상으로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스스로 깨달았다기보다는 외부로부터의 자극들 즉, 영상매체의 강력한 도전에 의해 영상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고 함이 더 정확할 것이다. 더구나 영상에 대한 인문학적 관심이 늦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영상매체를 통해 매개되는 문화현상들 즉 영화, 만화, 비디오 등이 고전적 전범에 의하면 저급한 것으로 취급되어 온 까닭이다. 이제 문자문화에만 집착한다는 것은 인문학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상호매체성이 예술 수용의 지배적인 형태로 되어 가는 상황에서 문화의 본질보다는 문화적인 것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형식들을 관찰하는 일일 것이다. 인문학이 가야 할 새로운 방향은 전통적인 인문학적 내용들과 매체적 작품들과의 단절보다는 연속성을 고려하면서 영화, 비디오, 만화, TV 등의 매체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작업을 인문학의 새로운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학제간의 연구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4]

임정택

연세대 독문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콘스탄츠대학에서 독문학과 매체사회학을 공부한 후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89년부터 연세대 교수로 재직중이며 최근에는 UCLA에서 영화를 연구하고 돌아와 연세대에 미디어아트 연구소를 설립,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펴낸 논문 및 저서로는 『계몽의 현대성』, 『제7예술: 영화의 시대』, 『영화텍스트의 구조와 수용방식』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논쟁: 독일 통일의 과정과 결과』 등 다수가 있다.